

군산시간여행축제
2026. 10. 2.(금) ~ 10. 5.(월)

시간을 걸다, 군산

형식시정
열린군산 10 2026
제354호

시민과 함께, 군산의 밤을 밝힙니다.

10월 8일

은파호수공원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불꽃이 피어납니다.

불꽃을 기다리는 설렘부터
빛으로 물드는 순간의 감동까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시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그 특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2026년 10월호

Contents

04	군산은 지금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
06	군산의 바다(海)	군산항
08	군산의 인(人)	김금숙 명장
11	군산의 미(味)	군산 참홍어
12	군산의 사(史)	옥구읍성(후백제) 유적
14	오늘 어디갈까?	10월의 군산 축제
20	리포터 소식	시민리포터 및 어린이(청소년)리포터
21	생활정보톡톡 / 군산영상	생활정보, 솜품 등 소개
22	도서관 소식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23	이달의 건강 소식	진드기 매개 감염병
24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25	문화산책	왜 베토벤의 음악은 어려운가
26	의정	의회 주요소식
28	시정소식	시정 주요소식
30	문화공연	공연·전시 소개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6. 10. 제354호 발행일 2026. 9. 23.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편집인 공보협력과장 홍종철, 미디어홍보계장 장유리, 주무관 최지원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협력과(☎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군산형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이가 들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병원이나 시설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산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형 통합돌봄’은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주거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별 상황에 맞춰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보건소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고 →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 적절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을 한곳에서 연결합니다.

군산형 통합돌봄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보건의료

방문의료, 방문운동,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등 → 집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요양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등 →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 대청소방역, 중간집 등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일상생활

노인맞춤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건강돌봄 반찬, 영양식사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 일상 속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지원



의료 따로, 요양 따로, 돌봄 따로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군산형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군산시가 함께합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군산형 통합돌봄은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한 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우선발굴군**

-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⑤ 고령장애인
- ⑥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돌봅니다.

군산형 통합돌봄은 군산시를 중심으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노인)와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애인) 등이 함께 참여해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돌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병원이나 시설을 먼저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면,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살피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군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곳은 치료하고, 불편한 일상은 돕고, 필요한 돌봄은 연결하고.

살던 곳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군산형 통합돌봄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454-3072~5

군산은 항구다!

1899년 개항부터 새만금신항까지, 바다를 품고 미래를 열다.



군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근대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원도심, 드넓은 들녘, 고군산군도의 푸른 바다... 하지만 군산의 오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항입니다. 군산항은 1899년 5월 1일 개항하며 군산의 근현대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후 군산의 산업과 물류가 발전하면서 제1부두부터 제7부두까지 차례로 조성됐고, 자동차·양곡·컨테이너·잡화 등 다양한 화물이 오가는 서해안의 주요 항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동차부두

제4·5부두는 자동차를 싣고 내리는 전용부두로, 군산항이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곳입니다. 자동차 수출과 환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곡부두

제6부두에는 양곡을 저장할 수 있는 사이로와 창고 등이 갖춰져 있어 대규모 양곡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제6부두 컨테이너 전용 선석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Ningbo·Shanghai·Yantai·Dalian·Chongqing·Japan·Hankook 등을 잇는 정기항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잡화·유연탄부두

제1~3부두와 제5·7부두 등에서는 잡화와 시멘트, 유연탄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바다를 잇는 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에는 화물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바닷길이 이어집니다. 2004년 준공된 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 증축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됐으며, 대합실과 입출국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여객터미널



6부두(컨테이너)



7부두(해상풍력 지원부두)



☀️ 군산의 항구, 과거와 미래를 잇다.

1899년 문을 연 군산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군산의 산업과 물류를 이끌어왔습니다.

수많은 배가 드나들고 자동차와 곡물, 컨테이너 등 다양한 화물이 오가는 동안 항구는 군산의 성장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의 항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존 군산항의 기능을 이어받고 새로운 물류 수요에 대응할 새만금신항이 더해지면서 군산의 바닷길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배가 들어오고 화물이 오가는 항구. 하지만 항구는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바다를 통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고, 산업을 움직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1899년 시작된 군산의 항구 이야기는 이제 ‘새만금신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한 번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신항, 군산의 새로운 바닷길



새만금신항 조감도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지역에 조성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9개 선석을 비롯한 방파제와 호안, 항만부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26년 9월 7일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 2011 ~ 2030년

▶ 6선석 조성
잡화 5선석 + 컨테이너 1선석



2단계 | 2031 ~ 2040년

▶ 3선석 조성
잡화·자동차·크루즈

특히 당초 2만 톤급으로 계획됐던 선석 규모가 5만 톤급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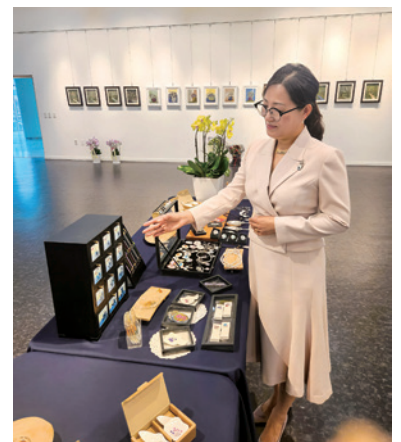


‘대한민국압화대전’ 대통령상 입상시
김금숙님 사진

2026년 군산시 명장 김금숙 “꽃 한 송이의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꽃잎과 줄기, 풀 한 포기까지 자연이 가진 색과 형태를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압화. 2007년 꽃꽂이를 배우던 중 우연히 압화를 접한 뒤 그 매력에 빠져 19년간 한길을 걸어온 김금숙 명장은 2019년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식물별 맞춤 건조와 장기보존 기술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은 물론 교육과 기술 전승에도 힘쓰고 있는 김금숙 명장. 특히 군산의 자연과 지역 이야기를 압화에 담아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연의 한순간을 작품으로 남기고 그 기술을 사람들과 나누는 김금숙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압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던 중, 2007년 꽃꽂이를 배우면서 우연히 압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생화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꽃의 색과 형태를 보존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압화를 배우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압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압화는 꽃의 색과 형태를 오래 간직하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같은 꽃이라도 건조 방법과 배치,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됩니다. 자연의 생명성과 계절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그 안에 사람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압화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다림」입니다.

꽃이 피기까지 계절을 기다리는 자연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당시 저 역시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언젠가 제 삶에도 다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작품에 담아 더욱 특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지난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회화형 압화부문 명인으로 선정됐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걸어온 압화의 길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금숙 명장 작품 '기다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압화가 어렵고 전문적인 공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꽃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작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꽃 한 송이, 잎 한 장의 특성을 관찰하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역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압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군산시 명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실까요?

군산은 너른 들판과 다양한 야생화, 야생식물이 있어 압화공예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군산의 자연을 활용해 군산만의 압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제가 가진 기술을 많은 시민과 후배들에게 전수해 압화 작가와 교육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싶습니다. 압화가 단순한 취미나 공예를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아, 언젠가는 ‘군산 하면 압화가 떠오를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금숙 명장 작품 '봄이 오길 기다리며'

“

꽃 한 송이에 담긴 계절과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김금숙 명장.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피워내고, 그 안에 군산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의 손끝에서 군산의 새로운 문화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19년의 여정이
앞으로 또 어떤 작품으로 피어날지 기대해봅니다.

”

삭힌 홍어만 홍어라고요?



군산 앞바다에서 만나는 특별한 맛

홍어 하면 흔히 흑산도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군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홍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군산은 참홍어의 주요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참홍어는 2017년 5톤에 불과했던 생산량이 2023년 1,489톤, 2024년 2,023톤으로 크게 늘었고, 2026년 6월 기준으로 555톤이 어획돼 전국 생산량의 약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은 참홍어의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며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참홍어는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삭혀 먹는 홍어뿐 아니라 생홍어회로도 맛볼 수 있어 홍어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선함을 살려 다양하게 즐기는 참홍어

참홍어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홍어는 회로 썰어 담백하게 즐길 수 있으며, 초장이나 양념장과 곁들이면 쫄깃한 식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채소와 함께 버무린 홍어무침은 입맛을 돋우는 별미이고, 구이나 튀김으로 조리하면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삭힌 홍어는 톡 쏘는 향과 맛이 특징이며, 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곁들인 홍어삼합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어구이, 홍어튀김 등 보다 친숙한 메뉴로도 선보이며 다양한 세대가 참홍어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밀고 먹는 군산 참홍어,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맛있는 참홍어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군산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참홍어를 지역 대표 특화 수산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참홍어의 생산·가공·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톡 쏘는 바다의 맛, 참홍어 한 점 어떠세요?
* 삭힌 홍어의 강렬한 맛부터 신선한 참홍어의 담백한 맛까지. *

* 군산 앞바다가 품은 특별한 맛, 군산 참홍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보세요. *

〈홍어무침 만드는 방법〉

기본재료

참홍어 300g, 무 1/4개, 오이 1/2개, 양파 1/2개, 미나리 한 줌, 대파 1/2대, 통깨 약간

양념재료

고춧가루 3큰술, 고추장 2큰술, 식초 3큰술, 설탕 2큰술, 매실청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 1 참홍어와 무, 오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양파와 대파는 채 썩니다.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 2 양념 재료를 모두 넣고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 3 준비한 참홍어와 채소에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 4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한번 더 가볍게 버무려줍니다.
- 5 새콤달콤하고 고소한 풍미의 홍어무침이 완성됩니다.



저기... 혹시... 그거 아세요?



군산시 학예연구사
나병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계절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산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기고하면서 독자분들에게 많은 군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군산은 근대가 전부인 도시가 아니라 오랜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도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매체에서 군산의 고대 및 해양사가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대를 제외한 군산의 역사 중 어떤 것을 소개할까?” 고민하던 중 군산에 숨겨져 있던 후백제의 역사를 밝혀준 후백제 유적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군산의 사(史)는 2026년 발굴된 ‘옥구읍성(후백제) 유적’입니다.

후백제는 후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멸망한 백제를 계승하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나라의 위치는 현재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이며 892년부터 936년까지 존속했습니다. 후백제는 완산주(現 전주시)를 도읍으로 정하고, 중국의 오월(吳越)과 통교하며, 후삼국의 주도권을 다투던 나라입니다.

그동안 군산 지역에서 후백제 관련 유적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하반기 ‘옥구읍성의 동헌 터’를 찾기 위한 시굴조사에서 후백제 시대(신라 말~고려 초) 기와가 발견되며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적 및 유물이 발견된 이후 전문가에게 조사방법, 조사시기, 조사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4월 발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시작한 발굴조사를 통해 후백제 시대 가마(추정),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열, 건물의 주춧돌 등을 확인하였고, 흙을 채토(採土)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塹穴), 군산지역 최초로 발견된 백제 시대 토기가마 등 다수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중능형문, 사격자문, 명문(官·市) 등 다량의 후백제 시대 기와, 백제 시대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과 소의 두개골 뼈, 삼국시대 삼족기 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신라시대 대부완, 고려 초 청자 편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 발굴되었습니다.

후백제 유적 중 처음으로 발굴된 官·市가 동시에 적힌 기와는 아직 정확한 뜻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한자로만 보았을 때 관에서 운영한 시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물이 발견된 옥구읍성이 본래는 바다와 인접한 곳으로 해상을 통한 물자이동이 용이했고, 금강과 만경강 하류의 중간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백제시대(추정) 수혈에서 발견된 말과 소의 두개골 뼈 또한 동시에 발견된 것은 한성백제에 만들어진 풍납토성 등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극히 드문 경우로 백제의 숨겨진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옥구읍성 후백제 유적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옥구읍성(후백제 유적)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산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실과 역사가 확인되면 개정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더불어 서해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 숨 쉬는 도시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다가 잠깐 시간을 내시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방문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발굴조사지역 완료 후 전경



삼국시대 1호 수혈 및 출토 동물뼈, 유물 ①



삼국시대 1호 수혈 및 출토 동물뼈, 유물 ②



통일신라~후백제 9~11호 수혈



통일신라~후백제 1호 건물지 출토 '官', '官市' 명 기와

가을바람 따라, 군산 축제 한 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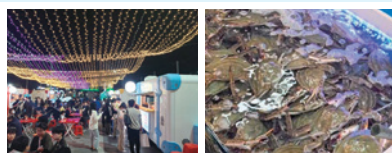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군산 곳곳에서 특별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민의 날, 군산의 대표 먹거리 짬뽕을 즐기는 축제까지! 이번 가을, 축제 따라 군산 한 바퀴 떠나볼까요?

10월 군산 축제 캘린더



10. 2.(금) ~ 10. 5.(일)
군산시간여행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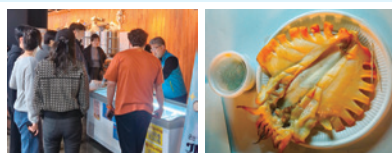
10. 2.(금) ~ 10. 5.(일)
해산물 야시장



10. 8.(목)
군산시민의 날



10. 9.(금) ~ 10. 11.(일)
군산짬뽕페스티벌



10. 30.(금) ~ 10. 31.(토)
갑·맥 파티



10. 31.(토) ~ 11. 1.(일)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 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시간을 거슬러, 군산으로 떠나는 여행

2026. 10. 2.(금) ~ 10. 5.(월) 4일간

구·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축제로 만나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거리에서 공연과 체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무대·공연 프로그램

거리에서 만나는 시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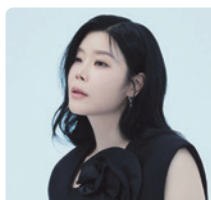
- ◎ 해군 군악의장대 특별공연 : 10. 2.(금) / 대학로 일원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가 펼치는 특별한 퍼포먼스!
축제의 시작을 더욱 힘차게 열어줍니다.
- ◎ 글로벌 모던 플래시몹 : 10. 2.(금) / 대학로 일원
군산의 근대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강렬한 군무로 표현하는 거리 퍼포먼스.
- ◎ 스트릿마당 : 상시 / 대학로 일원
차가 다니던 도로가 공연장이 됩니다.
뮤지컬부터 국악, 마술, 음악까지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만나보세요.



밤이 되면 더 특별한 시간여행

- ◎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 10. 4.(일) / 구·시청광장 특설무대
근대 의상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지는 종합 퍼포먼스 경연대회!
- ◎ 시간여행콘서트 : 10. 2.(금) ~ 10. 4.(일) / 구·시청광장 특설무대
축제의 밤을 채워줄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10. 2.(금)



린



하이키

10. 3.(토)



신예영



옛하트

10. 4.(일)



아다



정서주

체험·전시 프로그램

직접 해보면 더 재미있는 시간여행
보고, 입고, 만들고, 미션까지 즐겨보세요!

◎ 시간을 모아 선물로 바꾸는 '모아모아 시간'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군산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간'을 모아보세요.
QR코드·NFC를 통해 참여하면 모은 시간에 따라 기념품을 교환하거나
유료 프로그램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장과 군산 관광지를 오가며 나만의 시간여행을 완성해보세요!

◎ 오늘날만큼은 근대 사람처럼 '근대 의상실' : 상시 / 대학로 일원

근대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시간여행마을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 군산시민이 기획·운영하는 체험 '시민기획 프로그램' : 상시 / 대학로 일원

모던 보릿대 비눗방울 체험, 버려지는 종이로 만든 종이방향제, 1930 군산타임캡슐-미래를 심다 등 군산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만나 보세요.

◎ 전화가 울리면 받아라! '받아라! 미션 공중전화' : 상시 / 구·시청광장 일원

공중전화에서 5분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주어진 미션에 도전해보세요.
지역 상가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참여 프로그램!

◎ 다 함께 외쳐요! '우리 모두 3.5만세' : 10. 3.(토) ~ 10. 5.(월) / 대학로

군산에서 펼쳐졌던 3·5만세운동을 소재로 한 거리 퍼포먼스.
배우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방문객들이 직접 만세운동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무대 타임테이블											
10. 2.(금)			10. 3.(토)			10. 4.(일)			10. 5.(월)		
구분	특설무대	제2무대	스트릿마당	특설무대	제2무대	스트릿마당	특설무대	제2무대	스트릿마당	특설무대	제2무대
10:00~13:00	◆ 10:00~22:00 놀아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									◆ 10:00~19:00 놀아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	
13:00~14:00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태극기대교]	메가 버블쇼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송이읍/산동학교]	동해지역어촌관광지 페스티벌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비포문리]
14:00~15:00				대결! 독립선언서를 사수하라	스태이지 군산 [세종문화회관/무주읍]	어린이뮤지컬 / 미니콘서트	독립의 박을 터트려라	스태이지 군산 [유아트 뮤지컬단]	어린이뮤지컬 / 미니콘서트	대결! 독립선언서를 사수하라	스태이지 군산 [백라울로 양상봉]
15:00~16:00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태극기대교]	우리 모두 3.5만세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문학진흥(우리기차)]	우리 모두 3.5만세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구불길 위오-4]
16:00~17:00				독립의 박을 터트려라	스태이지 군산 [피크스토리/세이브]	아트릭 매직쇼	독립의 박을 터트려라	스태이지 군산 [군산스튜디오/세종문화회관]	거리위의 마술사	독립의 박을 터트려라	스태이지 군산 [구불길 위오-4]
17:00~18:00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문화예술공간/아우리]	스태이지 레드콘 [문대]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전통소리]	스태이지 레드콘 [파방]	1919 태극기 게양 작전	스태이지 군산 [부설로 푸른소리/충정]
18:00~19:00	해군 군악의장대		해군 군악의장대	스태이지 군산 [물빛/타/모멘트]	스태이지 레드콘 [스카티/태권술기]	군산항 발부두 공쿠르	장악원의 악사들	스태이지 레드콘 [농복]	스태이지 레드콘 [리프]	배악식 [박지수 주무관]	
19:00~20:00	글로벌 모던 플레시움 군산 시립예술단		글로벌 모던 플레시움	스태이지 군산 [사운드/유즈랜드]	스태이지 레드콘 [태권술/가짜]	스태이지 레드콘 [술로우인]	군장대학교 태권소	스태이지 레드콘 [리프]	스태이지 레드콘 [리프]		
20:00~21:00	개막식			시간여행콘서트 [신재영/첫사랑]	스태이지 레드콘 [유즈랜드]	모던 스트릿 뮤지컬	시간여행콘서트 [신재영]	코리안페스티벌 & 브라스밴드	동미자전거 음악단 파레이드		
21:00~22:00	시간여행콘서트 [신/하이라]			글로벌 EDM	코리안페스티벌 & 브라스밴드	국악마당	글로벌 EDM	뮤지컬 물랑루즈	퓨전 국악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사업 해산물 야시장

10. 2.(금) ~ 10. 5.(월) / 18:00 ~ 22:00

※ 10. 5.(월)은 17:00 ~ 21:00 운영

청년광장(해신동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시간여행축제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군산의 맛을 즐겨볼까요?

청년예술제와 공연을 비롯해 푸드트럭, 먹거리 부스, 게임존,

체험 프로그램까지 가을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 놓치지 마세요!

◎ 10. 3.(토) 19:30 | 가수 '동물원'

◎ 10. 4.(일) 19:30 | 가수 '배치기 탁'



군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

군산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2026. 10. 8.(목)

군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 1부 |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

16:00 ~ 17:00 군산시청 대강당

시민헌장 낭독과 시민의장·모범시민상 시상, 기념사와 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됩니다.



◎ 2부 | 별빛 음악회

19:00 ~ 20:10 은파호수공원 물빛광장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시민 문화·예술공연, 초청가수 공연이 이어집니다.



◎ 3부 | 별밤 불꽃쇼

20:10 ~ 20:25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별밤 불꽃쇼!

은파호수공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시민과 함께 특별한 밤을 완성합니다.

☑️ 군산 짬뽕페스티벌

가을엔 얼큰하게! 군산 짬뽕 한 그릇

2026. 10. 9.(금) ~ 10. 11.(일) 군산 백년광장에서
군산의 대표 먹거리 짬뽕을
맛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 짬뽕, 제대로 즐겨볼까요?

짬뽕레스토랑부터 테마별 먹거리 부스까지!
군산의 다양한 짬뽕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보글보글 짬뽕탕, 철가방 삼형제 등
짬뽕을 소재로 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맛있는 짬뽕을 즐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함께하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가족, 친구와 함께 얼큰하고 즐거운 가을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 군산 갑·맥 파티

가을밤, 갑오징어에 맥주 한 잔!

2026. 10. 30.(금) ~ 10. 31.(토)

비어포트에서 군산의 갑오징어와 수제맥주가 만나 가을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갑·맥 파티가 열립니다.

🍷 갑오징어와 수제맥주의 맛있는 만남

군산 갑오징어 시식행사와 군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 먹고, 보고, 즐기는 가을밤

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공연과 함께 포토존, SNS 이벤트, 체험부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됩니다.
가을밤, 군산의 바다 맛과 수제맥주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제9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빠른 세상에서, 천천히 마음을 전하는 시간

2026. 10. 31.(토) ~ 11. 1.(일)

군산우체통거리 일원

문자 한 통이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꼭꼭 눌러쓴 손글씨에는 조금 더 오래 기억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올가을, 군산우체통거리에서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소중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써보세요.



✉ 손으로 쓰고, 마음을 전하다.

제9회를 맞은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에서는 손편지·엽서 쓰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연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 주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

우체통거리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문화공연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합니다.

“

시간을 걷고, 맛을 즐기고,
음악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전하는 10월.
올가을의 특별한 하루를 군산에서 만나보세요.

”

책과 사람이 모인 이틀, 군산북페어

시민리포터 이성자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점으로 변신한 듯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군산북페어는 국내외 200여 팀이 참여해, 전국에서 모여든 독서가와 창작자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은 작가 초청 토크가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시민과 방문객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각 출판사와 창작자들이 준비한 개성 있는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념품은 물론, 기획전시 '헬로, 진(Zine)'과 취향에 따라 낱장 글을 골라 담는 참여형 전시 '텍스트 뷔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 무대인 군산회관뿐만 아니라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까지 행사 공간이 확대되어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독립문화마켓인 '만화당'과 정겨운 골목 잔치가 어우러지면서, 좁은 골목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책과 글, 지역의 공간이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3회째 빠짐없이 참여해 보니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느껴져 내년 행사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지역 도시와 독립출판 생태계가 한데 어우러지는 군산만의 독특한 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군산북페어만의 고유한 감성과 전문성을 더해가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군산의 보물을 찾아서

청소년리포터 박빛나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여름날, 군산에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땀을 닦아내며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떤 금은보화였을까요? 짜잔~ 정말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보물 제276호로 지정된 '발산리 오층석탑'입니다.

발산리 오층석탑은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발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발산초등학교 뒤뜰을 찾아가면 보물이 있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완주 봉림사터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주 시마타니 야소치가 수집 목적으로 지금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5층이었던 탑신은 현재 한 층이 없어서 4층만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미와 고려시대 특유의 간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층석탑 바로 옆에는 보물 제234호인 '발산리 석등'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물들이 있는 뜰 뒤편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주가 한국의 고미술품과 서적 등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시마타니 금고'도 있으니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에 꼭꼭 숨겨진 보물들! 여러분도 군산의 숨은 보물을 찾아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선의 움직임이 공간의 울림으로... 고송화 초대전

시민리포터 고덕자



오는 11월 8일까지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고송화 초대전 '선(線)의 리듬(Rhythm), 울림의 공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고송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선'을 중심으로 리듬과 파동, 공간으로 확장되는 조형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회화 작품 26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송화 작가에게 선은 단순한 조형 요소가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과 시간이 남긴 흔적이자,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수행의 언어입니다. 화면 속 선들은 긴장과 이완, 정지와 움직임을 반복하며 시각적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은 화면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 공간의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관람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선과 빛, 공간의 관계를 감각하며 각자의 내면에서 또 다른 공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송화 작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파리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리 그랑팔레 '콤파레종', 한국문화원 전시, 프랑스 릴 아트페어 등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꾸준히 선보여 왔습니다.

빛을 품은 군산의 밤

시민리포터 이유평



아이들과 함께 군산의 밤을 걸었습니다. 늘 보던 오래된 건물에 영상과 빛이 더해지니 아이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상이 눈앞에 펼쳐지자 신기한 듯 한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익숙했던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에는 저절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간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니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참을 집중해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오늘의 이 시간도 언젠가 꺼내어 볼 수 있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 국가유산미디어아트」는 익숙한 군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밤을 선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 가족과 함께 군산의 밤을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공간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활정보 톡톡

매년 반복되던 시험장
연말 갱신 대란은 이제 그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이렇게 바뀝니다!



Q 2026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다음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개정 전	개정 후
	갱신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시행
2026. 1. 1.

Q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첫 번째 갱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 ① 실물 운전면허증 기재 날짜와 상관없이 기존 대상자도 갱신기간이 변경됩니다.
 - ② 갱신기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1월 1일 ~ 12월 31일과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모두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시

'26년도 갱신기간이며 내 생일이 12월 1일인 경우 새로운 갱신 기간은 '26. 1. 1. ~ '27. 6. 1. 까지

- 개정 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인 '26. 1. 1. ~ '26. 12. 31.
- 개정 후 운전면허 갱신 기간 '26. 6. 2. ~ '27. 6. 1.을 합치면 돼요.

Q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과 준비물은 뭔가요?

- A**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1종 대형 및 특수는 청력 등 추가 검사로 인해 온라인 신청불가, 현장방문 필수)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사진(6개월 이내 여권용), 신체검사지(적성검사 시에만 해당)(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에는 사진 2장, 갱신 시 사진 1장 제출 필요)



나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하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120)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gunsansi>

영상으로 보는 군산

검색

군산의 행정소식, 지역명소, 축제 관광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복지의 계단
#군산희망복지박람회
#복지는 희망으로
돌아오는거야



#군산시청 왔는데 길을
잃었다면?
#민선9기
#시민주권도시군산
#소통행정



#군산북페어
#믿기지 않는 맛!
#ASMR #먹방



#오션팔레트
#파도풀 #해양레저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유아



〈코끼리 고모부〉

아홉 살 하나의 눈에 비친 낯선 어른, 그리고 그 낯섦이 사랑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동화
- 윤여림(지음), 소복이(그림), 사과잼롱롱, 2026

〈아름다운 밤을 알려 줄게〉

밤을 무서워하는 꼬마 박쥐와 홀로 긴 밤을 보내는 로즈 할머니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 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림책
- 마일리 뒤프렌(지음), 파니 뒤카세(그림), 이세진(옮김), 국민서관, 2026



초등 저학년



〈밤낮 레스토랑〉

야행성 동물 마을에, 낮에만 문을 여는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던 불량아 변화를 통해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야기
- 노예지(지음), 북스그라운드, 2026

〈양배추를 응원해 주세요〉

넘어져도, 굴러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거야.
꿈꾸는 모든 어린이를 응원하는 이야기
- 온선영(지음), 홍주연(그림), 창비, 2026



초등 고학년



〈미래 헌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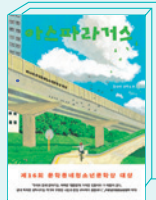
종이책이 사라진 세상, 문을 연 수상한 헌책방
최첨단 시대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마음과 상상력, 지금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 동화
- 강호미(지음), 불곰(그림), 다른어린이, 2026

〈내 인생 치트 키〉

내 인생에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치트 키가 주어진다면?
실수를 되돌릴수록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게임 판타지 성장 동화
- 이재문(지음), 유리(그림), 위즈덤하우스, 2026



청소년



〈아스파라거스〉

'왜?'가 '그래서'가 되는 이야기
이해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상을 조금씩 넓혀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
- 김양미, 문학동네, 2026

성인(문학)



〈찌니주의보〉

낯선 이웃과 밥을 나누며 정체성과 편견 너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
- 정지아, 창비, 2026

성인(인문)



〈도파민의 함정〉

더 강한 자극을 찾는 법이 아니라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집중력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 따웨이, 지니의서재, 2026

성인(에세이)



〈죽음이 처음인 당신에게〉

웃음과 저승이라는 판타지 공간, 따뜻한 위로가 있는 다정한 이야기를 담은 어른을 위한 동화
- 이삼, 대원앤북, 2026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주의하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털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프프가무시증’과 참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염되나요?

논·밭, 산, 풀숲 등에서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SFTS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있어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돌볼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받으세요

① 프프가무시증

- 발열, 오한,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
- 피부발진, 림프절이 붓는 증상
-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날 수 있음

②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
- 혈뇨·혈변, 눈 충혈 등의 증상
- 심한 경우 의식 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야외활동 전 긴소매, 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옷을 입습니다.
-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 진드기 노출을 줄입니다.
-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돛자리를 사용합니다.
- 등산이나 산책 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풀이 우거진 곳은 피합니다.
-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털어 세탁합니다.
- 귀가 후에는 샤워하면서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진드기 예방은 ‘물리지 않는 것’부터!

야외활동 후에는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증상



물린 흔적



검은 딱지



물린 자국

“지금 우리 동네는”

1. 대야면, 「제3회 새창이 연꽃마당 어울림 축제」 개최

대야면은 만경강 새창다리 연꽃공원 일원에서 「제3회 대야면 새창이 연꽃마당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주민과 행정, 지역기관 및 자생단체가 함께 가꾼 새창이 연꽃마당을 배경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연꽃 체험, 전래놀이, 주민 화합 윷놀이, 연잎밥·연잎차 시음, 주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2. 미성동, 주민 직접 농사지은 쌀 기탁 및 통장단 급식 봉사

미성동 주민 채미옥(한국여성농업인 미성동 분회장)·신은근(화흥마을 통장)은 직접 농사지은 백미 200kg을 서군산무료급식소에 기탁했다. 이날 미성동 통장단도 급식소를 찾아 식사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매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급식 봉사에 참여해 올해로 13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3. 옥산면, 「풍년보리원」 따뜻한 나눔에 동참

옥산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떡집 「풍년보리원」이 착한가게에 가입해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풍년보리원은 모싣잎송편, 가래떡, 보리빵떡 등 다양한 떡을 전통의 맛으로 만들어오고 있으며,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최문자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의지를 전했다.



4. 해신동, 사례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해신동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방 싱크대를 교체해 위생·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했다. 기존 싱크대의 노후화로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5. 옥구읍, 「옥구가든」 착한가게 가입으로 나눔 실천

옥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에 가입한 「옥구가든」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실천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옥구가든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기탁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함께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왜 베토벤의 음악은 어려운가

군산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명근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서주,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송가', 피아노 소나타 《월광》과 《비창》 등 베토벤의 작품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작품을 연주할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악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연주를 통해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악보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악보에는 다양한 기호가 표기되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준수한다고 해서 베토벤의 음악이 본래의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포르테 기호라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큰 소리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음악 전체의 흐름을 가속하는 힘을 요구합니다. 짧은 악센트 또한 단순히 강한 음량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에서는 음표보다 쉼표에 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토벤의 작품은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 안에 존재하지만, 그 형식 속에서 끊임없이 질서를 재구성합니다. 작은 동기 하나를 반복하고 변형해 음악 전체를 구성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순간에 멈추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놀라울 만큼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휘자에게 베토벤은 특히 까다로운 작곡가입니다. 지휘자가 음악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음악이 경직되고, 반대로 개입이 부족하면 음악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지휘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보다는 악보와 오케스트라 안에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를 파악하고, 이를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특히 템포 설정은 단순히 빠르기와 느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토벤의 음악에는 고유한 호흡과 걸음이 존재합니다. 지휘자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베토벤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곡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휘봉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박자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가. 정확한 박자를 유지하는 것조차 때때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그 박자 안에서 음악이 향하는 바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인지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작품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욱 난해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보를 다시 검토하고 하나의 동기, 하나의 악센트, 하나의 쉼표를 새롭게 분석하면 전혀 다른 베토벤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토벤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위대함은 거대한 음향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극히 적은 음악적 요소만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광대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베토벤을 연주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작품을 재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는 멘토나 책, 또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베토벤으로 돌아가 기본을 재정립하고 본질을 다시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베토벤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토벤의 작품은 끝이 있는 음악이 아니라, 연주될 때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제1차 본회의



이동현 의원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과 받지 못하는 시설의 지원기준과 결정 과정, 예산 편성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
▲ 6개 시설의 운영 여건과 공익성, 재정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 상위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량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요청



정도원 의원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 촉구

▲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관련 조례 제정에 발맞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요청 ▲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보상까지 원활한 이행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



박광일 의원

건물 노후화로 위협받는 어르신 복지, 노인종합복지관 재건해야

▲ 노인종합복지관의 공사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전 대책 마련 ▲ 군산시민의 노인복지 수요를 사전 예측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추진 TF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에 집중



김영란 의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도 군산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인하여 깊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유가족들이 군산시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심리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주기를 제안 ▲ 유가족과 관계기관 간 마주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 연결 시스템'을 구축



서동완 의원

장자도 등가교환, 시민의 혈세 낭비! 고의인가 실수인가

▲ 2019년 사업을 준비하며 이미 햇수로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2024년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두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등가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왜 사업을 진행했는지 지적 ▲ 준비가 전혀 안 된 이 사업을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음에도 계속 추진했는지, 만에 하나 외부인을 비롯하여 관련 담당자들이 승진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



오승철 의원

현대차 투자의 성공, 새만금 남북 3축도로 조기 건설에 달려 있습니다

▲ 군산시는 현대차그룹이 2029년까지 주요 시설의 단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특단의 사업 기간 단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강조
▲ 남북 3축도로 및 내부간선도로에 군산의 지역 여건과 교통 수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사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제2차 본회의



서은식 의원

도심 인근 낙후 지역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자

▲ 미성동과 같이 농촌을 포함한 곳의 에너지 복지 공급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 ▲ 월명산 인근 소룡동 주민들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 예방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 ▲ 해신·소룡·미성동은 산업단지 영향으로 도로, 인도, 가로등, 배수로 등이 빠르게 노후화되어 시급한 정비 필요



백다혜 의원

일자리에서 정착까지, 청년이 꿈꾸는 군산을

▲ 군산시는 새만금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인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과 관내 대학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 ▲ 군산시는 관련 부서와 대학, 기업, 고용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군산·새만금의 채용정보와 직무교육, 인턴십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채용 플랫폼을 구축 ▲ 각각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청년의 생애 단계에 맞게 연결한 '군산형 청년 정착 패키지'를 마련



최유정 의원

내흥동 금강변 러닝지원공간 조성, 시민의 건강한 매일을 채우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 군산역과 신도심이 맞닿아 있는 내흥동 금강변 일대가 '스마트 러닝지원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 ▲ 스마트 무인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지역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소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



이영미 의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시민 참여와 예방행정으로 만드는 깨끗한 군산

▲ 상습 불법 투기지역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배출·수거체계를 시범 운영
▲ 신고 단속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쓰레기 문제를 도시미관 전반의 문제로 보고 종합 관리하는 방안 제안



김경식 의원

군산시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이대로 두려는가?

▲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부분적인 보수와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고, LH와의 토지 무상사용 협의를 신속히 추진
▲ 무료급식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자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신축을 위한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



김관우 의원

군산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제언

▲ 제3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2027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을 조속히 편성 ▲ 현재 군산시 파크골프장 두 곳은 각각 18홀로 대회 운용이 어렵고 부대시설도 부족하며 전국대회를 운용하려면 36홀 규모가 필요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전국대회 유치 비전을 가져야 함 ▲ 신설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생활체육시설에 머물지 않도록 경기장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재미를 더하고, 부대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하는 미래지향적인 모델로 조성

군산시민에게
유익한정보를
소개합니다.

군산시보건소 안내

2026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

가벼운 증상은 문 여는 병·의원을 먼저 이용하세요

9.24.(목) ~ 9.27.(일)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확인 방법

-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www.gunsan.go.kr/health
- Play스토어·App Store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설치·이용

☎ 문의처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응급의료정보센터	☎ 063+120
군산시보건소	☎ 454-500

+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군산의료원 응급실	☎ 472-5129
동군산병원 응급실	☎ 440-0515

⌚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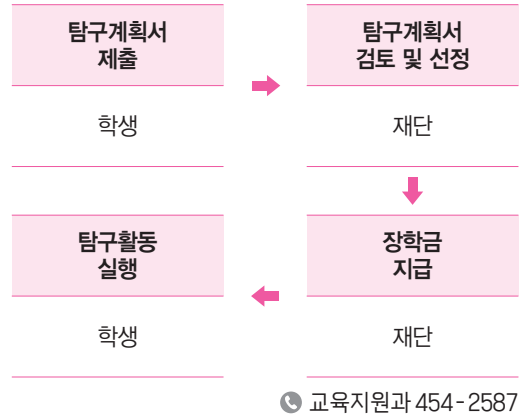
* 9. 24.(목)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하여 정보 제공

** 다만, 실제 운영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454-4934

2026년 자기신청 장학금 3기

신청대상	군산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진로·자기계발관련 탐구계획을 제출하는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장학금 지급
신청기간	2026. 10. 1. ~ 10. 31.
모집인원	500명
신청방법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신청



마음동행 여권민원 창구 운영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야간 운영)
장 소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1층 여권 창구
내 용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우선 배려 대상자 여권 민원 우선 안내·처리

☎ 열린민원과 454-254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로 보내주는 서비스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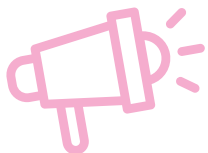
- 시범운영(8월) : 종이고지서, 전자고지서 병행 발송
- 전면시행(9월) : 전자고지서 열람 시 종이고지서 미발송

고지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및 본고지서 등)

고지절차

- 본인확인 및 동의 → 열람 시 고지효력 발생
- 미수신 및 미열람 → 종이고지서 우편발송

☎ 교통행정과 454-3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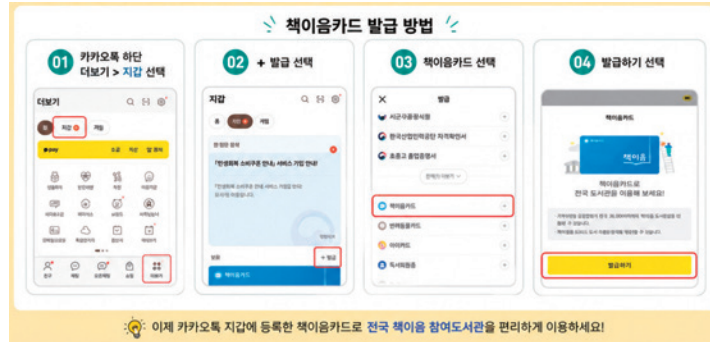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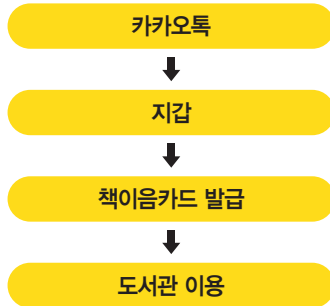


카카오톡 지갑 책임음카드 발급 서비스 운영

책임음카드란?

- 실물 회원증 없이 카카오톡 지갑에서 책임음카드를 발급받아 군산시립도서관 및 전국 책임음 참여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 도서관관리과 454-5645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사업기간 2026. 8.~ 12.(예산 소진 시 종료)

사업대상 군산시 소재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주요 설치 설비 가정형 태양광(500W 이내)

지원내용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설비 비용 일부 지원

구분	설비용량	설치비용	지원금	자기부담금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500W 이내	100만 원(500W 기준)	80만 원	20만 원

신청방법

-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자율적으로 계약 체결
- 도내 참여기업 목록(일부)
 - 군산시 소재 참여기업: (주)세원이엔에스(☎ 063-452-6167)
 - 전주시 소재 참여기업: (주)에스더ENG(☎ 063-212-3490), (주)세움이엔티(☎ 063-229-3315) 등
 - 익산시 소재 참여기업: (유)배재토건(☎ 063-832-0020), (주)황금전력(☎ 063-856-0009) 등
- 더 많은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최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군산시(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

☎ 신재생에너지과 454-4425

2026~2027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구분	지원대상	사업기간		접종장소
어린이	생후 6개월~14세 (‘12. 1. 1.~’26. 8. 31. 출생자)	2회 접종대상	’26. 9. 21.~’27. 4. 30.	위탁의료기관
		1회 접종대상	’26. 9. 28.~’27. 4. 30.	
임신부	임신부 (임신주수 무관)		’26. 9. 21.~’27. 4. 30.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61. 12. 31.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26. 10. 12.~’27. 4. 30.	보건소(지소, 진료소) 및 위탁의료기관
		70~74세	’26. 10. 15.~’27. 4. 30.	
		65~69세	’26. 10. 19.~’27. 4. 30.	
군산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본인		’26. 10. 22.~12. 31.	위탁의료기관
	15~18세 시민 (‘08. 1. 1.~’11. 12. 31. 출생자)		’26. 10. 22.~12. 31.	
	60~64세 시민 (‘62. 1. 1.~’66. 12. 31. 출생자)			
	보육·돌봄 종사자			

※ 접종수요에 따라 대상자별 인플루엔자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보건소는 평일만 운영(09:00~15:30,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 감염병관리과 454-5057



01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프로젝트 II'

일 시 2026. 10. 7.(목)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지 휘 이명근 지휘자
연 주 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김연아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
입 장 료 전 좌석 5,000원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26

02 가족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

일 시 2026. 10. 10.(토) ~ 10. 11.(일) 11:00, 14:00
장 소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
예 매 처 티켓링크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0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박물관 역사강좌 「우리들의 여가생활 : 근대 취미의 형성과 오늘」 '한국 근대 관광의 탄생과 변용'

일 시 2026. 10. 15.(목) 14:00
장 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층 규장각실
강 연 자 조성운(역사아카이브연구소 연구소장)
내 용 근대에 형성된 취미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그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강의
☎ 박물관관리과 454-7876

04 연극 '꽃 별이 지나'

일 시 2026. 10. 16.(금) 19:30 / 2026. 10. 17.(토) 15: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
입 장 료 전 좌석 20,000원
예 매 처 티켓링크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05 군산시립합창단 제83회 기획연주회 '청주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가명」

일 시 2026. 10. 22.(목)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지 휘 조은혜 상임지휘자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
입 장 료 전 좌석 5,000원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26

06 2026 군산새만금아카데미 5강, AI 안 쓰면 손해보는 시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일 시 2026. 10. 22.(목)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강 사 조재혁 교수(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입 장 료 무료
참여방법 유선신청, 현장접수 또는 평생학습정보망(www.gunsan.go.kr) 접수
 ☎ 교육지원과 454-2602



07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관 주요 전시 일정

기간	전시명	장소	내용
2026. 8. 12. ~ 2026. 11. 8.	술이 흐르는 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특별전시실	가양주 문화부터 오늘날 군산의 지역 술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 술의 문화 조명
2026. 8. 25. ~ 2026. 11. 8.	근대미술관 고송화 초대전	근대미술관	서양화 작품 전시
2026. 9. 1. ~ 2026. 10. 18.	시민열린갤러리 수문화예술교육센터 단체전	시민열린갤러리 (박물관 2층)	공예 작품 전시
2026. 8. 25. ~ 2026. 10. 25.	장미갤러리 이형한국화회 단체전	장미갤러리(2층)	한국화 작품 전시
2026. 9. 27. ~ 2026. 11. 29.	만세 뒤에 남은 기록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군산 3.1운동관련 판결문 수형기록 등을 조명
2026. 6. 16. ~ 2026. 10. 11.	나라를 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속에서 군산과 이어진 인연 조명

☎ 박물관관리과 454-7873

08 근대역사박물관 행사 일정

기간	전시명	장소	내용
2026. 6. 6. ~ 2026. 10. 31.	근대역사박물관 주말상설행사	근대생활관 (박물관 3층) 및 광장	연극 공연 및 전래놀이 체험 진행

☎ 박물관관리과 454-7873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 받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누가?

주소가 군산시가 아닌 개인(법인 단체 불가)

얼마나?

연간 최대 2,000만 원

기부자 혜택

① 세제혜택(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 전액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10만 원 + 초과분의 44%
- 20만 원 초과 : 14만 4천 원 + 초과분의 16.5%

② 답례품

기부금의 30%한도 군산시 특산품 제공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은행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회원가입 > 기부하기 > 군산시 선택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신청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농협방문 > 기탁서 작성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신청



기부하러 가기

- ※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
- (일반기부) 새들 어린이 숲 놀이터 조성
- (지정기부)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군산시 공보협력과 ☎ 063-454-2612~3

